



##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주민의 사회적 배제 현상 분석\*

- 부산광역시 감천문화마을을 대상으로 -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of Residents in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이 상 훈\*\*

Lee, Sang-Hoon

**요약** : 이 연구는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배제 현상을 탐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의 감천 2동 마을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고, 9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주민은 빈곤개념을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측면 등 다차원적인 배제현상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는 타율적 자기배제와 자발적 자기배제가 연동으로 작용하여 지역사회 배제현상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민의 배제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동하였고, 그 중 경제적 배제는 지역주민에게 가장 영향력이 높은 배제차원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과 지역주민 참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지역주민의 참여가 사업의 한 과정으로 간주되어 행정적 근거로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방법에 보다 발전된 고민이 요구된다.

**핵심용어** : 도시재생, 관광지, 지역주민, 지역사회, 사회적 배제, 생활공간, 감천문화마을, 질적연구

**ABSTRACT** : This study explored the social exclusion phenomenon of residents in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Gamcheon 2-dong village in Busan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target site for the sake of this study. Findings showed that residents have experienced multidimensional exclusion phenomena such as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aspects in addition to poverty. Also, it was found that controlled-exclusion and self-exclusion worked together to strengthen the exclusion of the community. The social exclusion of residents operated as a cause of community conflict, and economic exclusion was analyzed to be the most influential exclusionary dimension for resident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need to make an active effort to collect authentic opinions from residents and to encourage participation from residents. Participation of residents should be regarded as a process of the project and should not be used as an administrative basis. In addition, more advanced methods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are required to collect opinions.

**Key words** : Urban regeneration, Tourism destination, Residents, Social exclusion, Living space, Gamcheon 2-dong village, Qualitative research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22136)

\*\* 경기대학교 관광융합연구소 연구교수. e-mail: shoon@kgu.ac.kr

## I. 서 론

1990년대 중반부터 학교, 학원을 중심으로 발생한 ‘왕따’, ‘집단 따돌림’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양산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직장, 소모임 등으로 확대되어 발생하였다. 왕따를 경험한 자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지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는 소식을 우리 사회는 그간 다수 접하였다. 왕따는 ‘한 집단의 소속원 중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또는 집단의 암묵적인 규칙을 어긴 자를 여럿이 함께 또는 개인이 돌아가며 신체적·심리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동’(박경숙·손희권·송혜정, 1998)을 의미하고, ‘배제(exclusion)’ 개념과 함께 여러 학문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왕따’, ‘배제현상’은 소속집단의 신뢰와 공동체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생활공간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 생활거주지가 관광지화 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관광은 지역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오랜 시간동안 인식되어져 왔고, 2000년대 중반 이후 낙후된 지역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최근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어졌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해결책 = 관광’이라는 공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도시재생 전략으로 관광을 도입하는데 그 범위를 낙후된 생활공간까지 확대하고, 분포 역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생활공간은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성격보다 관광지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지역주민의 일상적 삶의 존중이 저하되고 있다는 소식은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다(뉴시스, 2017. 11. 28.). 이러한 현상은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성과주의에 몰입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과 지방정부는 관광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Mordue, 2005)이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생활공간을 관광지화 된 공간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차별적 혜택 인식은 주민 간 관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켜 갈등적 양상을 유발할 수 있고(이상훈·고동완, 2017), 지역주민의 불인정 지각이 정책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황희정, 2015). 즉, 지역주민의 배제현상은 지역사회 갈등과 관광지화 사업에 대한 정책 불만족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외 공간변화에 대한 주민 발언권 제약, 지역주민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불인정, 지역주민 참여 제약 등은 지역사회 주인으로서 지역주민의 자존감 훼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시재생 사업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배제 현상의 이해는 가치가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가 관광지화 되는 과정은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특성(Huang & Stewart, 1996: 28)과 구성원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변화(이상훈·고동완, 2017: 141)되는 현상을 동반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 관계, 관광지화에 찬성하는 지역주민과 반대하는 지역주민 간 관계, 특정한 목적으로 조직된 (주민)집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또는 지역주민 간 관계 등 매우 복잡해질 수 있어 심층적인 연구는 요구된다.

그동안 사회적 배제에 대한 주요 논의대상은 빈곤자를 비롯하여 이혼여성, 소수자 집단, 다문화 가정, 취약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그리고 연구의 구조 역시 다수의 집단(예: 비장애인)이 소수의 집단(예: 장애인)을 배제하는 현상과 소수의 집단이 배제되어 있는 현상 그 자체에 대한 이해에 집중되었고 관광의 도입으로 인해 지역사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배제 연구는 미흡했다. 사회적 배제는 개인과 집단이 경제, 사회문화, 정치적인 부분에서 제공되는 기회를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왜 기회를 획득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Rodgers, 1995)으로 유용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적 배제 개념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소위 '왕따현상'을 접근하는 것은 결론론적으로 현재시점의 배제상태만 논의하는 것을 넘어선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그간 어떠한 배경, 이유, 원인에 의해서 배제되어 왔는지? 그리고 지역주민이 배제되는 특성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 배제는 개인과 사회와의 단절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으로(강신욱, 2006: 12), 1990년대에 이르러 기존의 '빈곤'과 '불평등'을 대체하며 사회정책의 대표적인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문진영, 2004: 257). 유럽연합(EU)은 1989년 유럽사회헌장(The european social charter)에서 동 개념을 최초 사용한 이후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The amsterdam treaty), 2000년 리스본 유럽 정상회담(The lisbon european summit), 니스유럽이사회(The nice european council)등에서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이 논의되며(Begg & Berghman, 2002: 179-180) 빈곤문제, 소수자 집단, 취약계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적 배제 연구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개념적 정의에 대한 것이다.

사실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차원적인 의미를 지닌 모호한 개념인데다가, '배제'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은 무수히 많고, 각 요인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배제를 강화시킨다(Silver, 1994: 536).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유일한 합의점은 사회적 배제를 단일한 기준에 근거하여 개념을 규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Silver, 1995: 59; Weinberg & Ruano-Borbala, 19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자들은 사회적 배제의 개념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크게 특정 상황의 결핍, 권리 부인(否認) 등에 대한 상황 설명적 정의(윤진호, 2004; EC, 2002; Pierson, 2002; Social Exclusion Unit, 1997)와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한 조건 충족형 정의(문진영, 2004; Burchardt *et al.*, 1999; Le Grand, 1999)로 구분되고 있다. EC(2002)와 윤진호(2004)는 기본적인 권리가 부적절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고, Pierson(2002)은 사회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박탈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Burchardt *et al.*(1999), Le Grand(1999), 문진영(2004)은 첫째, (지역)사회 구성원일 것, 둘째, 자기통제 가능성, 셋째, 정상적 참여 가능성, 넷째, 참여희망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모두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자들의 개념적 정의 방식과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결핍 상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되고 있다. 또한 개념적으로 포괄하는 범위가 빈곤 개념을 넘어서고, 개인의 통제가능성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강신욱, 2006: 16).

사회적 배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빈곤(poverty), 박탈(deprivation) 등의 개념이 있다. 그렇다면 이 개념과 사회적 배제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Berghman(1995)은 관련된 개념들을 정태적인 일시적 결과를 설명하는가, 또는 동태적

인 과정을 설명하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소득의 부족이라는 단일 차원의 기준에 의존하는지 또는 소득 외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다차원을 고려하는지에 따라 구분하였다. 빈곤은 개인이나 집단이 속한 사회에서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활동에 참여하며, 관습적인 혹은 최소한으로 널리 장려되거나 인정되는 생활조건과 설비를 갖추기 위한 자원이 결여될 때를 말한다. 박탈은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유형의(공적, 사적) 자원의 결핍을 의미한다(강신욱, 2006: 16, 22 재인용; Townsend, 1979). 이 두 개념은 물질적

으로 결핍되어 있는 정태적인 현상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빈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단일차원이라면 박탈은 경제적 결핍을 넘어 모든 영역으로 확대된 다차원적인 빈곤상태를 의미한다.

사회적 배제는 첫째, 교육, 보건, 환경, 주거, 문화, 사회권 등에 대한 접근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불이익'(Barry, 1998; Berghman, 1995; Gore and Figueiredo, 1997; Room, 1995)과 둘째, 각각의 차원들에서 일어나는 불이익들 간의 유발적 관계들에서 일어나는 역동적

〈표 1〉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적 정의

구분	주요내용
EC(2002)	주거, 교육, 건강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의 권리가 부적절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
Social Exclusion Unit(1997)	실업, 미숙련, 저소득, 열악한 주거, 나쁜 건강상태, 범죄율이 높은 환경, 가족 붕괴 등의 문제가 결합되어 고통 받는 개인이나 지역에게 나타나는 문제
Burchardt et al(1999)	한 개인이 지리적으로 한 사회에 거주하지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 시민으로서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봄
Le Grand(1999)	지리적으로 특정 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신의 통제를 넘어선 이유로 인해 그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람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배제되어있다고 판단함
Pierson(2002)	개인, 가족, 집단, 지역으로부터 사회에 대한 사회, 경제, 정치적 참여에 필요한 자원을 박탈하는 과정
윤진호(2004)	빈곤과는 달리 일정한 기본적 권리(사회 보장권, 경제적 복지권, 사회적 참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 등)를 부인당하는 것
문진영(2004)	한 개인이 지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상대성) 누려야 할 경제적, 문화적, 정서적인 활동(다차원성)에 지속적(역동성)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회(기관)로부터 배제되어있다고 판단함
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2005)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의 정상적인 경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는 상태
김안나(2007)	사회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과 결핍, 불이익을 당해 사회·경제·정치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상황
Krishnan(2015)	구조적, 제도적으로 행위자적 방해과정과 사회적 유대에 대한 다차원적인 파괴
Dennis, Alamanos, Papagiannidis, Bourlakis(2016)	재화와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사회적 지지, 동료에 결핍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으로부터 배제되는 현상

자료 :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표 2〉 사회적 배제의 개념적 구조

구분	정태적 결과(Static outcome)	동태적 결과(Dynamic outcome)
소득(Income)	빈곤(Poverty)	빈곤화(Impoverishment)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박탈(Deprivation)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자료 : Berghman(1995)

과정(dynamic process), 셋째, 상대적으로 열등한 소수 집단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전체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에서, 넷째, 개인과 사회,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등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며(Atkinson & Hill, 1998; Room, 1995; Silver, 1999), 관계 안에서 배제를 일으키는 행위주체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김정현, 2012: 72). 즉 다차원적인 특성을 포괄하여 특정한 현상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현상이 발생한 원인과 과정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있다.

## 2. 사회적 배제의 연구동향과 주요쟁점

사회적 배제 연구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해당자가 배제된 것을 강조하고 그 과정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개념의 성격에서 드러나듯이 사회적 배제를 지각하거나 경험한 개인 또는 집단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 배제 개념이 사회적 관계에서 생산된 개념이라는 점을 전제한다면 Twenge, Baumeister, DeWall, Ciarocco and Bartels (2007)의 연구는 핵심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들은 기부, 자원봉사, 사고처리, 협력, 죄수의 딜레마, 신뢰, 중재 등 7가지 실험을 토대로 사회적 배제가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오민정·황윤용(2014, 2015)은 사회적 배제를 지각했다라도 무시를 당한 집단이 거절을 당한 집단보다 윤리적 소비를 덜 하고(오민정·황윤용, 2014), 과시적 소비를 더욱 크게

한다는 연구(오민정·황윤용, 2015)를 발표하며 소비행동과 연관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배제는 감정적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Kieselbach (2003)과 Morgan, Burns, Fitzpatrick, Pinfold and Priebe(2007)은 사회적 배제가 정신건강과 밀접한 부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고, 박경순(2015)은 노인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선행연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연희·신황용·이희선(2012)은 사회적 배제 영역을 경제, 사회, 정치로 구분하여 행복과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는데, 경제적, 사회적 배제가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것 외 학업성취도(김현숙·김광혁, 2017), 우울감(김창기·이진성, 2013), 자살생각(김숙향·황경란, 2016), 자아존중감(정수정·김소은·정익중, 2017)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 배제연구와 관련하여 국가 간 비교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문진영(2004)은 프랑스, 영국, 스웨덴 국가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수행하였다. 그는 동일한 사회적 배제 지표(빈곤율, 소득배율, 지니계수, 장기실직률, 조기교육 기회상실, 영아사망률)를 토대로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였는데,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국가(스웨덴)가 사회적 배제 지표가 낮고, 자유주의 전통이 강한 국가(영국)가 사회적 배제 지표가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상대적으로 복지국가의 성격이 강할수록, 사회적 배제 지표가 낮다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는 각 사회

에서 통용되는 규범적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공통된 지표를 토대로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시도일 수 있다. 그 이유는 사회체제마다 국가, 사회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강신욱, 2006: 20) 이에 대한 적용가능성과 연구결과는 다소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회적 배제연구는 이주민(민기·박철민, 2016; 한지은, 2017),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발생한 주민 배제 연구(김동선, 2017)가 이루어졌고, 지역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소외 연구(김경은, 2015), 세계유산 지역의 지역주민의 불인정 지각 연구(황희정, 2015),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지역주민 배제연구(이영아, 2003)와 같이 생활공간이 특정한 정책, 또는 사업 진행에 따라 진행된 지역주민의 배제 연구는 Mordue(2005)의 연구 외 많지 않다. Mordue(2005)는 영국 북동부 지역 역사도시 York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 중개인, 지역주민이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상호 간 경쟁이 이루어지는지 연구하였다. 그에 따르면 도심지는 관광객, 관광 중개인, 지역주민에 의해 치열한 경쟁공간으로 활용되어지며 상호 간 견제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관광의 소비 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지역주민은 상대적으로 여러 제도에서 배제되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Mordue, 2005). 김경은(2015)은 지역사회에 문화예술단체가 유입된 이후 지역주민은 '뒤쳐짐', '문화활동은 그들만의 리그', '이웃과 단절', '외로움'을 경험하며 '외부자에 의한 배제' 현상이 크게 나타나 지역주민은 결국 소외되어지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황희정(2015)은 세계유산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불인정은 정책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이해관계자로서 주민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영아(2013)는 도시재

생사업에서 지역주민의 배제는 정부의 사업목표와 주민의 이해관계 불일치, 주민의 적절한 보상 문제, 지역주민의 의견표시 창구 부족 등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3가지의 주요한 특장으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배제 논의대상은 대체적으로 빈곤문제를 비롯하여 이혼여성, 소수자 집단, 다문화 가정, 취약계층,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현재의 시점에서 어떠한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결과론적인 연구가 다수이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과정과 관계성을 강조하는 개념인데 이러한 과정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몇몇 연구(김경은, 2015; 김정현, 2012; Marit & Aasland, 2016; Niskala & Ridanpää, 2015)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힘들다. 셋째, 사회적 배제에 대한 측정도구는 대체적으로 2차 자료(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강신욱 외, 2005; 김안나, 2007; 윤성호, 2005; Bradshaw, Levitas & Finch, 2000; Robinson & Oppenheim, 1998)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사회적 배제 지표를 1차, 2차 지표 등 총 18개 지표를 토대로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에 적용하여 공동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18개 지표 중 14개가 빈곤(소득), 실업과 관련된 지표로 사회적 배제 담론이 지향하는 포괄성과 다차원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강신욱, 2006: 19). 그 이유는 사회적 배제개념의 기본적인 성격상 주관적 판단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간 사회적 배제론이 가지는 장점에 비해 현재까지의 연구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는데, 그것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기입식 척도가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윤성호, 2012: 54 재 인용; Atkinson, Cantillon, Marlier & Nolan, 2002).

이 연구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배제 현상에 관심이 있다. 특정한 공간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박탈되는 과정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 개념은 Burchardt, Le Grand, and Piachaud(1999), Le Grand(1999), 문진영(2004)이 개념적으로 접근한 방식에 기반 하여 '지리적으로 같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상적인 참여를 희망하지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또는 구성원(지역주민, 공공조직 등)으로부터 박탈되는 과정과 결과'로 조작화하여 정의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감천 2동 마을로 선정하였다. 동 마을은 한국전쟁, 국내 정세의 불안극복, 태극도 종교문제 등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이주민에 의해 형성된 마을이자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이다(이상훈·고동완, 2017: 147). 현재는 감천문화마을이자 부산의 마추픽추라 불리며 연간 200만 명(국민일보, 2018. 1. 2.)이상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화된 생활공간이다. 감천문화마을은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에 당선되어 10개의 작품을 설치하며 마을사업이 시작되었다. 2009년 예술작품 설치 당시에는 사진작가를 중심으로 소수의 개별 방문객이 대부분이었고, 마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주민조직 구성, 마을 기업(아트숍) 운영,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 고유 번호증 발급,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 그리고 사단법인 설립 등이 이루어졌었고(이상훈·강상

훈, 2018), 현재는 국제시장·부평강통시장, 부산 원도심 스토리투어, 태종대와 함께 2017-2018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한국관광공사, 2017)되는 등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화된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 2.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역주민의 배제 현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을 사용한 이유는 선행 연구를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분야에서 지역주민의 배제 현상 연구가 국내·외를 막론하여 극소수에 불과하고, 배제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부족한데, 이럴 경우 질적 연구 방법론이 대안이 될 수 있다(이상훈·강상훈, 2018; Creswell, 2007). 면접은 감천문화마을이 관광지화 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현재 감천문화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식(semi-structured interview)을 토대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면접 질문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그동안 과거 경험은 과거 기억이 현재 시점에서 진술된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거치면서 임의적으로 선택, 재해석, 그리고 왜곡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연구 자료의 타당성과 관련한 비판이 있었다(김왕배·이수철, 2008: 37). 그러나 기억은 사적인 기억과 사회적 기억, 그리고 집단적 기억으로 구분될 수 있고, 개인에게는 사적인 회상이라 할지라도,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집합적 기억도 존재한다(박종구, 2015: 81-82; 2013: 36). 따라서 비록 진술자의 기억이 왜곡된 형태라도 그 상황을 설명하는 사회적 사실로서, 사회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쓰여질 수 있다(이수철, 2011: 202). 또한 문헌자료가 가

〈표 3〉 면접질문

구분	면접질문
생활공간의 관광지화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이 관광지화 된 것에 대하여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까?</li> <li>· 관광지화 된 이후 마을주민에 대한 지원은 만족하십니까?</li> <li>· 외부인이 많이 들어오고, 원주민이 많이 나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i> <li>· 관광지처럼 되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해 본 것은 없습니까?</li> <li>· 옛 마을 분위기와 현재의 마을 분위기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li> </ul>
지역주민 배제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하구청과 주민협의회는 마을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편입니까?</li> <li>· 마을 규칙, 제도에 의해서 배제된 경험이 있습니까?</li> <li>· 마을회의 참여는 제약이 없습니까?</li> <li>· 회의 시 주민발언이 자유로운 편입니까? 의견을 제시하면 반응이 잘 되는 편입니까?</li> <li>· 면접자께서 성격이 과격하거나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경험 있습니까?</li> <li>· 외부인과 원주민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까? 지원의 차이는 없습니까?</li> <li>· 마을 주민이 모두 같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 반에 따라 차별 있습니까?</li> </ul>
개인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사업 등에 관여(찬성, 반대, 마을조직 업무, 개인적 일자리)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li> </ul>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재를 계속 받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li> <li>·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마을에 대한 애착은 어떻습니까?</li> <li>· 현재와 동일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주할 생각은 있습니까?</li> </ul>

진 공백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효용가치가 충분하고(김왕배·이수철, 2008: 41), 관광학계에서도 인터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예, 박종구, 2015; 이상훈·고동완, 2017; 이상훈·강상훈, 2018).

이 연구는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 면접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사전 대화시간을 충분히 가졌고, 사전대화 이 연구자가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에서 연구주제로 연결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1명당 1회, 1:1 대면면접을 실시하였고, 최초 면접 참여에 대한 동의를 확보한 후 사전 양해를 구해 면접내용을 녹음하였으며 1인당 평균 68분 간 진행되었다. 면접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기록지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면접 내용을 현장에서 기록하였고, 면접 종료 후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면접 대상자 선정은 최초 면접자 A가 선정되면 A와 면접을 진행한 후 A로부터 다음 면접

자 B를 추천받고, B와 면접 종료 후 B로부터 C를 추천받는 방식의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눈덩이 표집 방법은 면접 대상자 선정에 동질화 가능성이 있지만, 연구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어 사회과학 정성적 연구방법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면접대상은 감천 2동 마을이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9년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주민과 마을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구성원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면접인원은 총 9명(남자 6명, 여자 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감천문화마을은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의 주민조직이 구성되어 있어 편향(偏向)된 응답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조직 가입자 5명, 비가입자 4명으로 구분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대상자의 나이는 50-60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천 2동 마을의 노인비율이 2017년 기준 27.4%(사하구청, 2017)로써 초고령사회<sup>1)</sup>에 진입해 있다는 점을 반영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면접종료 시점은 더 이상 새로



〈표 4〉 면접대상자 현황

성명	나이	성별	직업	협의회 가입여부	면접 시간	성명	나이	성별	직업	협의회 가입여부	면접 시간
양진수	50대	남자	상업	가입	100분	이승엽	60대	남자	무직	가입	78분
여윤석	60대	남자	상업	가입	78분	유혁중	60대	여자	상업	가입	62분
이상문	70대	여자	상업	비가입	40분	정성훈	70대	남자	무직	가입	31분
조재성	60대	남자	부동산업	비가입	78분	황우현	60대	남자	무직	비가입	94분
이재용	60대	여자	옷 수선	비가입	50분						

주 : 면접 대상자의 성명은 假名임

운 정보가 나오지 않을 때 까지 진행하였고, 면접기간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2017년 12월 24일까지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면접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다.

질적연구의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단위로 분리하고, 이를 조직화해서 자료 안에 숨어있던 패턴을 찾는 작업이다(유기용·정종원·김영석·김한별, 2012: 245 재인용; Bogdan & Biklen, 2007).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면접 자료를 개방 코딩(open coding) 하고,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범주화하는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적용했다. 이 분석방법은 Glaser and Strauss (1967)가 개발한 근거이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활용되는 분석 방법이었으나 근거이론 이외의 일반적인 질적자료 분석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김재영, 2009: 139 재인용; Merriam, 1998). 면접자료는 연구자 개인컴퓨터를 활용하여 한글(한글 2014)파일에 모두 전사한 후 문서화한 뒤 출력하여 면접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용지의 여백을 활용하여 핵심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1차 코딩을 진행하

였다. 이러한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진행하면서 더 이상 핵심어가 수정, 변경되지 않는 포화상태(총 10회 실시)가 될 때까지 코딩작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Creswell and Miller(2000)가 제안한 연구 참여자 확인, 외부감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면접자가 응답한 내용확인 은 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Lincoln & Guba, 1985: 314).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면접 대상자가 문어체(文語體) 형식의 글자를 읽기에는 부담을 가진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면접이 종료가 된 후 면접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면접자에게 재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분류, 해석, 정리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 검토법(peer examination)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는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3인, 박사과정 대학원생 3인을 초청하여 연구 결과를 교차 확인을 의뢰하였고, 최소 4인이 공통적으로 동일한 범주로 인정하는 결과를 활용하여 이후 논의를 진행하였다.

1) 보건복지부(2006)에 따르면,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간주되는데, 우리나라 평균 노인비율이 13.1%(2013년도 기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동 기간 감천 2동 마을은 21.4%로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바 있다.

## IV. 결과 및 고찰

### 1.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지역주민 배제 현상

#### 1) 지역주민의 정치적 배제

감천문화마을의 2009년 이전 시기는 마을방문객이 극소수에 불과하였고, 2011년을 기점으로 마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상훈·고동완, 2017: 147)되며 도시재생을 위한 시설마련과 활동이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감천 2동 마을을 관광지 성격의 공간으로 조성했는데 당시 지역주민은 '가난'을 상품화하여 마을사업을 진행한다고 느껴 자존감이 크게 훼손되었고 결국 마을사업에 반대하는 성향이 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마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마을사업 성격, 추진과정, 사업종류, 향후계획 등 마을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미흡하였고, 마을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소수의 지역주민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다.

*유혁중 :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여기 마추픽추 만들면 어떻게냐. 우리가 동네 시끄럽다고 반대를 했어. (체념하듯이) 구청하고 이런대서 다 같이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

*이승엽 : 동네 사람들 의견을 듣고 추진을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관이 주도로 하는 것이고, 이게 잘 해야 되는 건데, (분노하며) 우리의 치부를 나타내는 거야.*

*이상문 : 그전에는 구청 사람들도 자주 올라와서 여기 뭐가 어떻게... 그러더니 지금은 일절 없어. 저들끼리 쉬쉬하니깐 모르지.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정성훈 : 여기에 지나가는 사람들, (화가 난 것을 다소 억제하며) 여기 뒤에 사는 사람들 다 물어봐... 구청 직원들이나 알겠지. 저거끼리 합의를 했는지 모르지.*

감천문화마을 지역주민은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편·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조직에 요청하였으나 반영이 미흡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조재성은 마을사업 운영자들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어 행정기관에 발언권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배제되는 경험을 겪었다고 진술하였다. 양진수는 주민조직의 간부로서 마을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건의사항을 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며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감천문화마을은 마을사업을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인 지원과 통제를 받고 있다. 즉, '지역주민 ↔ 주민조직 ↔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구조로 마을사업이 추진된다. 비회원 지역주민은 주민조직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제를 당하고, 주민조직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의사항과 의견반영이 미흡하여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 결국 지역주민 모두가 배제경험을 갖고 있다.

*정성훈 : 이야기 해봐야 뭘 해. (포기하듯이) 협의회에도 이야기 해도, 구청에 이야기 해도 그때 뿐 인데 뭘.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단체가 있으면 모를까.*

*조재성 : 어느 날 문화마을 협의회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비난을 했더라고요. 바로 동장한테 내가 해명을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했죠. 막상 자기가 다치니깐.. 참석을 안 시키는거라. (화를 내며) 이거는 뭐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나쁜 놈으로 몰아가요.*

양진수 : 업자들은 말해도 안 되니깐 구청에다가 요청했지. 돈 들여 가지고 공사 해놓고 잘 못된 것을 하자보수 못 시키나고. 핑계대고 속이 터지는거야. (목소리를 높이며) 나만 나쁜 놈 되는거야.

## 2) 지역주민의 경제적 배제

관광개발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유발한다. 특히 물가(지가)상승은 대표적인 관광개발의 경제적 영향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감천문화마을이 관광지화 된 공간으로 변해가면서 상승된 물가(지가)는 원주민의 소비 참여를 방해하고, 방문객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마을의 상권형성으로 상업 활동이 인기를 얻자 건물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였다. 지역주민은 사업경험과 역량이 부족하여 사업운업을 직접 할 수 없고, 외부자본가에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건물의 가치는 과거보다 상승하여 임대료가 높아졌지만, 건물주를 제외하고 임차인들 간 권리금을 주고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즉 지역주민은 건물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건물사용권에 대한 측면에서 비교적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성훈 : 비싸지. 저기 봐 보통 4천 5백 원, 5천 5백원 싸야 3천원이야. 못 사먹지. 그냥 2백 원짜리 커피 빼먹지. (치...) 우리는 못 사먹어. 그럴 바에 집에서 타 먹고 나와야지.

양진수 : 외지인들이 사실 돈 다 벌었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벌었잖아? 원주민들은 사업적인 면에서 뒤쳐지잖아. 세는 많이 받지만 권리금은 주인이 갖는 게 아니잖아.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주민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아니야.

황우현 : 불편하기만 하고 택시타고 오려고 해도 (차 밀려서) 동네 들어오지도 못하고...

여운석 : 여기는 그냥 흘러가는 곳이라. 그냥 잠시 둘러보고는 자갈치나 국제시장으로 빠진단 말이야. 30분, 1시간 코스로 왔다가 가는... 소비하는 곳이 아니야.

도시재생 사업의 전략으로 관광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방문객의 소비지출에 의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관광개발의 긍정적인 영향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낙후된 지역의 관광지화 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명분과 논리로 작용되어 왔다. 그런데 연구대상지의 지역주민은 신규 창출된 일자리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주민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2017년 기준 27.4%) 노동을 할 수 있는 주민이 많지 않고, 관광객의 방문 특성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선정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에는 기반시설 조성도 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현장직 일자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불만에 따라 주민조직은 지역주민 일자리 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문 : 동네사람들은 장사 할 만한사람들이 없어요. 전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이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 살기 때문에 동네사람들이 장사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

양진수 : 플랜카드 걸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하는데 최저임금이다 보니깐... 잘 모 집이 안 돼. 게스트하우스? 9시 출근하면

6시 퇴근해야 돼. 손님은 밤 10시 되어서 온단 말이야. 누가 하려고 하겠어? 사람구 하기 억수로 힘들어... (중략) ... 공무원이 쓰는 1억원이 일반인이 쓰는 5천만원보다 못할 때가 허다해. (흥분하며) 회사에서 평당 600만원이야. 동네 사람한테 시키면 300만원에 해. 회사 배불리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동네 사람 하자고 그러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입찰 들어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잡부라도 동네사람 쓰게 해라. 그것도 안 되고...

### 3) 지역주민의 사회·문화적 배제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체성 상실, 원도심의 쇠퇴와 소외 등의 문제로 인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정광진·이종근·이삼수, 2016: 20). 이러한 배경은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공간에서 거주해왔다는 것을 인정해준다. 감천문화마을은 이러한 유형의 도시공간에 해당되는데, 지역주민은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방문객의 정서적인 무시발언으로 인해 수치심을 자극했다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폭력이 물리적인 힘으로 타자의 자유의지와는 반대로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개념(최재식, 2002: 218)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제도상의 배제, 정서적인 무시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김대군, 2013: 81)이라는 점을 비춰보았을 때 방문객에 의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Gilligan (2000)은 체면손상(Loss of face)이 극대화 되면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폭력이 유발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방문객의 폭력으로 인해 수치심이 유발되어 잠재적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고, 방문객은 지역주민과 사회적 관계에서 구분 지으며 차별화하고 있다.

유혁중 : 여기에 이사를 오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안 좋은 동네 가려고 그러냐? 그러더라. 밖에서 놀러온 엄마가 바라 공부 안하면 저렇게 산다. 이렇게도 이야기 하고...

이승엽 : 유치원 선생님이 학생들 데리고 와서, 공부 못하면 이렇게 산다고 하고... (크게 분노하며)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어땠겠어. 똑같은 사람인데...

감천문화마을은 감천 2동 전역(총 18개통)을 대상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가장 높은 지역 4개통(15-18통)에 집중되어 있다. 15-18통은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국내외 많이 알려진 공간이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공폐가가 다수 존재하고, 상권이 형성된 핵심 구역을 제외한 많은 수의 지역주민은 집 매매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이 지역에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은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감천 2동 지역주민은 동일한 행정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구분짓기를 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자발적 이탈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이 있지만(문진영, 2004: 260), 그러한 행동이 나오게 된 상황적 맥락(기존 질서에 대한 적개심과 차별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사회적 배제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 자발적 자기배제(self-exclusion)의 경우라도 사회적 배제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Barry, 1998: 2).

이상문 : 밤 6시만 되면 (사람들이) 짹 빠져가나고 없어요. 지금은 추우니깐 더 일찍 없고... (가게) 문 열어놓고 있으면 뭘해. 우리도 6시 반이나 7시 되면 문 닫고 들어가요.

이재용 : (크게 관심 없듯이) 솔직히 말해서 문화마을이 되고 나서 못 가봤거든? 옛날에 문화마을에 살다가 여기 17번 앞으로 이사 왔거든... 안가.. 어릴 때 살던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는 불편하지. 집도 너무 조그마하고, 일단 뭐 하려면 밑으로 내려와야지. 위에 사는 것보다 여기 내려오면 조금 더 잘 사는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깐 그 동네 자체를 안 가는 거라.

## 2. 마을 주민조직의 지역주민 배제현상

감천문화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주민조직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마을사업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추진되는 것을 주민주도형 또는 지역사회 기반형 관광 등의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마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은 지역리더를 중심으로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지역주민은 수동적 참여나 비참여 집단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Phandanouvong & Kim, 2018). 감천문화마을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해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라는 주민조직이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다. 최초 주민조직의 회원자격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입신청서와 회비를 납부한 자에 자격을 부여했지만, 현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회원 12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마을 인구(2017년 7,847명) 대비 1.53%에 해당하는 소수(少數)의 조직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조직에 추가적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어 지역주민의 마을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진수 : 모든 사업이 협의회에 이관되

어 있으니깐... 구청에서 우리한테 위탁하는거지.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온 것은 목적에 맞게끔..

조재성 : (어이 없어 하며) 협의회 가입하려고 하니깐 이력서 써오라고....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막아.

여운석 : 처음에 나를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5만원을 냈더니 간부회의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뽀이 나서 000 하고 대판 안했다. 000가 "형님 제발 좀.. 나는 동의 못합니다. 동네를 위해서라면 좀 참아라..." 이런 논조로 말을 한단 말이야.

전술한바와 같이 감천문화마을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주민조직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민조직은 마을발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는 비교적 미흡하다는 진술이 주민 면접과정에서 나타났다. 또한 마을해설은 주민조직 내 운영위원(25명)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시하였고, 마을사업으로 설치된 조형물도 지역주민이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민조직 내 임원 A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인쇄 사업을 개인사업장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동료임원 양진수는 A가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이승엽 : 동네에 도움을 주려는 사람한테도 자기는 필요 없다. 하지마라. 우리만 하면 된다고 한다고. 자기들만의 문화마을로 만들고자하는 인식이 대단히 강한거지. 협의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유지해야한다는 뭐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표 5〉 감천문화마을 정관개정 내용

기존	개정
<p>제7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p> <p>1. 일반회원은 소정의 별표1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총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p>	<p>제7조 (회원의 자격)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 일반회원은 <b>총 120명 이내로 한다.</b></p> <p>② 본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p> <p>1. 일반회원은 소정의 별표1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총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로서, 설립취지, 사업의 추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b>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b></p>

자료 : 감천문화마을 내부자료((사)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 정관 주요개정내용)

조재성 : 주민협의회 법이 문화해설사를 하려면 운영위원만 할 수 있더라고... 해설사 교육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더라고... 스탬프 찍는 것도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나 써먹지 마라는 거야. (어이없어하며) 근데 자기들이라는게 웃기는거잖아요.

양진수 : 문화마을에서 나오는 인쇄(지도, 엽서 등)는 거의 다 하니깐. 그것 때문에 임원하는 사람인데, 그걸 내놓기가 쉽지가 않지? 임원으로 역할을 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깐 이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몰라. 자기 일하는 게 바쁜데.. 회의 때 엉뚱한 소리하고...

감천문화마을 사업은 주민조직에 의해 추진되지만 주민 조직 내에서도 극소수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원은 주민조직 120명 회원 중 찬반투표를 통해 25명이 선발되고, 임원진은 운영위원의 동의를 거쳐 11명이 선발된다. 선출된 운영위원과 임원진은 마을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일반회원의 의견 반영은 미흡한 것으로 면접과정에서 나타났다.

특히 일반회원 정성훈은 주민조직 전체회의가 1년에 한번 개최되고, 총회가 토론 및 논의 형태의 회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결과발표식으로 인지하고 있어 일반회원의 의견개진은 비교적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승엽 : 처음에 회비 안내면 안 되게끔 회칙을 만든 거야. 거기서 돈까지 내면서 누가 하는데 그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확 빠져가지고... 나도 회원이지만 돈 내면 아무것도 없는데...

정성훈 : 협의회도 보면 우리들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나? 임원들하고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지. 우리는 모르는 거야. 총회 때 한번 와가지고 발표하면 그런가보다 하는 거지...

앞서 전술한 내용과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마을사업은 주민조직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지만 사실상 주민조직 내 극소수에 불과한 운영위원 및 임원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감천 2동 지역주민은 주민조직에 의해 마을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약되고, 주민조직 일반회

원은 임원진과 운영위원 등 간부급 운영진에 의해 참여 등이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였다. Dahrendorf(1958)은 '경제적인 면을 포함한 모든 권위(權威)에 의한 불평등'을 갈등으로 정의하고 권위관계는 사회구조의 보편적 요소로서, '권위의 행사에 참여하는' 지배집단은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반면, '권위행사에서 배제된' 종속 집단은 권위배분에 참여하려 하는데 이 두 집단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한다(장선화·김영지, 2017: 55-56 재인용). 그렇기 때문에 권위행사에서 배제된 지역주민과 주민조직의 관계, 주민조직 중 일반회원과 임원진의 관계에서 갈등적 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3. 지역주민 배제에 따른 지역사회

#### 갈등축발

감천문화마을은 마을을 관광지화 된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마을 내 많은 변화를 양산하지만 방문객이 집중되는 공간은 상권으로 형성되어 지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동반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상업 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은 경제적 이익 증가로 인해 마을사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만, 순수한 주거목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소외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지역주민은 이러한 차별적 혜택을 주민 간의 '역차별 현상'으로 인식하고, 주민 간 경계를 구분 짓는 원인(이상훈·고동완, 2017: 153)으로 작용하였다. 이 현상은 주민 간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여윤석, 이승엽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윤석 : 점포를 안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소유이라. 몇 명도 나한테 하소연을 하지만 자기들이 소외받은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지.

이승엽 : 문화마을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입에서 욕을 하지. 마을사람끼리 마음이 안 좋으면 안 될 것 아니야. 지금 길가에 있는 사람은 돈 몇 푼 받고 다 나가 버리고 돈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장사한다고 들어오고.. 길가 사람하고 뒤에 사람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다고...

관광이라는 현상이 하나의 산업으로 간주되고 그것을 통한 사람들의 경제행위가 관찰될 수 있는데(전경수, 2008), 관광개발 성과에 대한 기대는 지역발전과 개인의 경제적 이익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이상훈·고동완, 2017: 140). 연구결과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의 지역주민은 경제적 영향을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김안나(2007)가 주장한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서 경제적 배제가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은 지역의 관광지화 사업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한 또는 차별적 혜택으로 인식한 지역주민은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식은 경제적 혜택을 받은 자를 '그들'로 인식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우리'로 인식하며 타자화하여 경계를 구분 짓고 있다. 지역주민의 차별적 혜택은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주민 간 부정적인 관계 형성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황우현 : 여기 사는 사람은 집 개조를 하래도 못하잖아. 지 돈이 들어가는데 땅 값이 올라간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여기 도로가 근처에 있는 집들만 집 값이 올라가는 거지. 우리는 뭐 없는데.. 피부에 와닿게 구청에서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재용 : (이전 가게 자리에) 문화마을 주차장 생긴다고 가게가 철거가 됐잖아. 우리는 이사비, 권리금 다 해가지고 보상을 한 2,200만원 정도 받았어. 이전 가게 보다 넓어져서 (그전에는 없었는데...) 싱크대도.. 내가 달았어. 하하하 커피 한잔 마셔도 뭐가 있어야지... 예전엔 좁아서 안됐잖아. 문화마을 되면서 우리는 더 잘 된 것 같애.

양진수 : 무허가가 많다보니깐 누가 27군데 고발을 했어. 저번에 양성화 한다고 몇 군데 풀어줘서 허가 난 곳도 있는데... 허가도 없이 하는 놈들이 더 큰 소리 치면 허가 내서 하는 사람 기분 좋아? (빈정 상한 듯이) 개뿔 아무 것도 없으면서 다른 업소에 약만 올리고 그러면 안 되지.

## V. 결론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관광을 도입하고, 그 범위가 생활공간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관광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여 낙후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주거권, 삶의 터전으로서의 공간 활용, 공간의 주체로서 지역주민이 존중 되지 않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현상을 탐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감천문화마을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고, 9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천문화마을 지역주민은 소득의 결핍

과 같이 경제적 박탈의 범주를 포함하여 사회적, 정치적인 측면 등 다차원적인 배제현상을 경험하였고, 배제경험자와 배제행위자는 비교적 뚜렷이 구분되었다. 도시재생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조직과 지역주민(배제경험자)에 대한 배제행위자로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을사업 운영을 위임받은 주민조직은 지역주민(배제경험자)에 대한 배제행위자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배제분야 선행연구는 대체적으로 주류사회의 가치와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의해 배제된 현상에 주목하며 소수집단(예. 장애인)이 다수집단(예. 비장애인)에 의한 배제현상에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생활공간을 대상지로 수행된 이 연구에서는 다수집단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이 소수집단의 주민조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제되며 참여가 제한되고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박탈을 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집단의 수와 크기보다 권한의 보유여부에 의해 배제방향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도시재생 사업에서 사회적 배제는 타율적 자기배제와 자발적 자기배제가 연동으로 작용하여 지역사회 배제현상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주민은 정상적인 참여를 희망하지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견제시, 노동참여, 경제적 소외, 사업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박탈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 방문객의 체면손상(Gilligan, 2000) 발언은 지역주민의 수치심을 극대화시켜 자존감 훼손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감천문화마을 주민은 지역이 낙후된 마을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낙후된 지역'을 구분하여 경계를 짓고 그 범주에서 자신을 '그들(더 낙후된 공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다른 나'의 관계로 차별화하며 자발적 자기배제가 발생시켰다. 즉, 지역주민이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사업과정에서 역동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적



인 요인들에 의해 스스로 배제되어 갈 수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지역주민의 배제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동하였다. 특히 지역주민의 배제경험은 주민 '역차별 현상'으로 인식되어 혜택을 받은 주민과 받지 못한 주민의 경계를 구분 짓는 요소로 작동하였다. 경제적 배제는 배제의 여러 차원 중 가장 핵심적인 차원인데(김안나, 2007: 251), 지역주민에게 가장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즉, 경제적 혜택 발생은 마을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추가 사업에 동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주민은 경제적 혜택을 받은 주민에 대해 시기와 질투가 유발되어 상호 간 갈등적 요소를 양산한다. 이러한 이유는 같은 공간에 거주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부정적인 사건(교통체증, 물가상승, 주차문제 등)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차별적으로 나타났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관광의 경제적 영향이 사회적, 생태적 영향보다 환영받는다고 주장하는데(고동완, 2001),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차별과 배제는 다른 차원의 배제보다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과 지역주민 참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 사업이나 지역관광 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강조하여(신현주·강명구, 2017; Park *et al.*, 2018), 학계나 실무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은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대다수를 포함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목소리 반영이 중요해 주민공청회, 사업설명회, 주민교육 등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동등한 주체

가 되지 못하고 지역주민은 계획의 도구나 대상으로 활용되거나(이영아, 2013; Stewart, 1995; Tang, Lee & Ng, 2012), 지역주민의 참여가 사업의 한 과정으로 간주되어 단순히 '지역주민의 참여와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행정적 근거로 활용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참여방법에 보다 발전된 고민이 요구된다. 주민조직을 구성하여 마을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즉 극소수의 지역주민(주민조직)이 추진하는 마을사업은 대다수의 지역주민이 생활하는 공간 전체에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수의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주민은 동등한 권한과 평등한 혜택을 누려야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강제성이 없는 주민조직의 자체적인 정관과 규정에 근거하여 소수의 '지역주민'이 다수의 '지역주민'을 통제하고 제약하는 것은 지역사회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관광지화 결과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전략으로 추진되는 관광은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배제현상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억제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과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으로 인해 파생되는 긍정적인 효과 창출에만 기대하지 말고, 그로 인해 부작용을 함께 해소 및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배제현상을 탐구하여 현상의 특성과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내용이다. 연구대상은 배제경험자와 배제행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는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연구대상지의 인구구조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한 지역이지만 50대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관광분야에서 비교적 다루지 않았던 개념과 주제를 토대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관광분야 사회적 배제 연구가 경험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신욱 · 김안나 · 박능후 · 김은희 · 유진영(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신욱(2006).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특집 대안적 사회정책 모델. 『동향과 전망』, 66, 9-32.
- 고동완(2001). 인구통계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에 따른 관광영향 인식의 차이. 『관광학연구』, 25(3), 63-80.
- 국민일보(2018. 1. 2.). ‘한국의 마추픽추’ 부산 감천 문화마을 관광객 200만명 돌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23758&code=61122019&cp=mv>
- 김정은(2015). 취약지역 주민의 소외경험 분석: 문화예술단체에 의한 주민소외의 근거이론적 접근. 『지역발전연구』, 24(2), 111-147.
- 김대군(2013). 관계적 폭력과 소수자 배려윤리: 학교폭력문제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32, 79-96.
- 김동선(2017). 쪽방밀집지역의 주거환경과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GIS 활용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8), 209-225.
- 김숙향 · 황경란(2016).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263-273.
- 김안나(2007).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32, 227-256.
- 김연희 · 신황용 · 이희선(2012). 사회적 배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3(3), 99-123.
- 김왕배 · 이수철(2008). 1930년대 만주의 조선족 마을 공동체: 흑룡강성 오상현 조선족 마을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44, 33-73.
- 김재영(2009). 『한문과 교수: 학습모형』.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 김정현(2012). 저소득 이혼여성의 빈곤화 과정: 가족제도와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배제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69-102.
- 김창기 · 이진성(2013).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3(2), 296-307.
- 김현숙 · 김광혁(2017). 사회적 배제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39, 25-48.
- 뉴스시스(2017. 11. 28.). 부산학원센터 ‘감천문화마을 찬찬히 들여다보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28\\_0000160812&cID=10811&pID=108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28_0000160812&cID=10811&pID=10800)
- 문진영(2004).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3), 253-277.
- 민기 · 박철민(2016). 사회적, 공간적 특성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분석 특별·광역시 지역과 도지역 거주자의 비교. 『대한정치학회』, 24(4), 1-32.
- 박경순(2015). 사회적 배제가 농촌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정책』, 42(4), 231-253.
- 박경숙 · 손희권 · 송혜정(1998).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종구(2015). 구술사 방법론을 활용한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주는 학교폭력 예방의 효과분석. 『관광학연구』, 39(4), 77-93.
- 박주형(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43, 4-43.
- 보건복지부(2006).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II)』. 서울.
- 사하구청(2017). 2017 지역기본자료(<http://www.saha.go.kr/ebook/jsp/E-Book/basic->

- plan/basicplan\_2017/index.html#page=1)  
 사하구청(2017). 통계연보(<http://www.saha.go.kr/portal/contents.do?mId=0303020000>)
- 신현주 · 강명구(2017).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시 용산구 해방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3), 25-46.
- 오민정 · 황윤용(2014). 사회적 배제는 윤리적 소비 행동을 감소시키는가?. 『소비자학연구』, 25(4), 181-203.
- 오민정 · 황윤용(2015). 사회적 배제를 지각한 사람들의 과시적 소비 관계 연구. 『소비문화연구』, 18(2), 147-167.
- 유기웅 · 정종원 · 김영석 · 김한별(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윤성호(2005). 한국노동빈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21(1), 149-176.
- 윤성호(2012). 한국형 사회배제성 척도 개발 연구. 『사회보장연구』, 28(1), 53-95.
- 윤진호(2004). 『선진국의 빈부격차와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사례 연구』. 서울: 서울사회경제연구소.
- 이상훈 · 강상훈(2018). 관광에 의한 생활공간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 『관광학연구』, 42(2), 85-102. <http://dx.doi.org/10.17086/JTS.2018.42.2.85.102>
- 이상훈 · 고동환(2017). 생활공간의 관광지화에 따른 지역사회연대 변화 연구. 『관광학연구』, 41(2), 139-161. <http://dx.doi.org/10.17086/JTS.2017.41.2.11.24>
- 이수철(2011). 지역 시민사회의 연대와 갈등. 『지역사회학』, 12(2), 193-224.
- 이영아(2013).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참여와 배제: 영주시 삼각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46, 102-130.
- 장선화 · 김영지(2017). 갈등론적 관점에서 본 이주자 사회통합유형의 지속과 변화. 『EU연구』, 46, 49-97.
- 전경수(2008). 『문화의 이해』. 서울: 일지사.
- 정광진 · 이종근 · 이삼수(2016).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유형 및 재원조달 특성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2), 19-37.
- 정수정 · 김소은 · 정익중(2017). 비경제적 사회적 배제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불안, 위축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1(4), 605-629.
- 최재식(2002). 폭력에 관한 철학적 연구: 폭력의 파괴성을 넘어서. 『철학과 현상학 연구』, 19, 217-247.
- 한국관광공사(2017).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2017 한국관광 100선」.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mustgo100/mustgo100\\_list.jsp](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mustgo100/mustgo100_list.jsp)
- 한지은(201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문화개선 방안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3(1), 675-684.
- 황희정(2015). 세계유산 지역주민, 그들은 행복한가?: 수원화성 지역의 불인정 지각과 정주의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9(3), 5-18.
- Atkinson, A. B., & Hills, J. (1998). *Exclusion, employment and opportunity*. CASE paper(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London.
- Atkinson, T., Cantillon, B., Marlier, E., & Nolan, B. (2002). *Social indicators: The EU and social inclusion*. OUP Oxford.
- Barry, B. (1998). Social exclusion, social isol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 Begg, I., & Berghman, J. (2002). Introduction: EU social (exclusion) policy revisited?.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2(3), 179-194.
- Berghman, J. (1995). *Social exclusion in Europe*. Policy context and analytical framework.
- Bogdan, R., & Biklen, S. (2007).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s* (5th.). NJ: PrenticeHall
- Bradshaw, J., Levitas, R., & Finch, N. (2000).

- Lone parents,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survey of Britain. Retrieved June, 1, 2006.
- Burchardt, T., Le Grand, J., & Piachaud, D. (1999).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3*(3), 227-244.
- Creswell, J. (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 질적 연구 방법론: 다섯가지접근, 조홍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2011). 서울: 학지사.
- Creswell, J., & Miller, D. (2000). Determining validity in qualitative inquiry. *Theory in- to Practice, 39*(3), 124-130.
- Dahrendorf, R. (1958). Toward a theory of social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2), 170-183.
- Dennis, C., Alamanos, E., Papagiannidis, S., & Bourlakis, M. (2016). Does social exclusion influence multiple channel use? The interconnections with community, happiness, and well-being.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9*(3), 1061-1070.
- EC. (2002). *European social statistics: Income,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nd report). Luxembourg.
- Foucault, M. (1994). 『미셸푸코의 권력이론: 정일준 역』. 서울: 도서출판 한울.
- Gilligan, J. (2000). *Violence: Reflections on our deadliest epidemic*/by James Gilliga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inquiry*. Aldin, Chicago.
- Gore, C., & Figueiredo, J. B. (1997). *Social exclusion and anti-poverty policy: A debate (Vol. 110)*.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Huang, Y. H., & Stewart, W. P. (1996). Rural tourism development: Shifting basis of community solidarity. *Journal of Travel Research, 34*(4), 26-31.
- Kieselbach, T. (2003). Long-term unemployment among young people: The risk of social exclus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1-2), 69-76.
- Krishnan, L. (2015). Social exclusion, mental health, disadvantage and injustice. *Psychology and Developing Societies, 27*(2), 155-173.
- Le Grand, J. (1999). Competition, cooperation, or control? Tales from the British national health service. *Health Affairs, 18*(3), 27-39.
-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London: Sage Publications, Inc.
- Marit, H., & Aasland, A. (2016, May). Exploring dimensions of women's 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in Nepal. In Forum for Development Studies, (pp. 281-309). Routledge.
- Merriam, S.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 Bass.
- Mordue, T. (2005). Tourism, performance and social exclusion in "Olde York".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1), 179-198.
- Morgan, C., Burns, T., Fitzpatrick, R., Pinfold, V., & Priebe, S. (2007). Social exclusion and mental health.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1*(6), 477-483.
- Niskala, M., & Ridanpää, J. (2016). Ethnic representations and social exclusion: Sáminess in Finnish Lapland tourism promotion. *Scandinavi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16*(4), 375-394.
- Park, E., Phandanouvong, T., & Kim, S. (2018). Evaluating participation in community-based tourism: a local perspective in Laos. *Current Issues in Tourism, 21*(2), 128-132.

- Pierson, J. (2002). *Tackling social exclusion (Vol. 3)*. Psychology Press.
- Robinson, P., & Oppenheim, C. (1998). *Social exclusion indicators: A submission to the social exclusion unit*. Lond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Rodgers, G. (1995). What is special about a social exclusion approach. Social exclusion: Rhetoric, reality, response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43-56.
- Room, G. (1995).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Policy Press.
- Sil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 531-578.
- Silver, H. (1995). Reconceptualizing social disadvantage: Three paradigms of social exclusion. *Social Exclusion*.
- Silver, H. (1999). Policies to reinforce social cohesion in Europe. *Research Series-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38-73.
- Social Exclusion Unit, (1997). *Social exclusion unit: Purpose, work priorities and working methods*. London: Cabinet Office.
- Stewart, A. (1995). Two conceptions of citizenship.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6(1), 63-78.
- Tang, W. S., Lee, J. W. Y., & Ng, M. K. (2012). Public engagement as a tool of hegemony: The case of designing the new central harbourfront in Hong Kong. *Critical Sociology*, 38(1), 89-106.
-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Univ of California Press.
- Twenge, J. M., Baumeister, R. F., DeWall, C. N., Ciarocco, N. J., & Bartels, J. M. (2007). Social exclusion decrease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56-66.
- Weinberg, A., & Ruano-Borbalan, J. C. (1993). Comprendre l'exclusion. *Sciences Humaines*, 28, 12-15.

2018년 2월 1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8년 2월 9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8년 2월 25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료